

문화와 관광에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아키타현의회의장 시부야 마사토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키타현 의회 의장 시부야 마사토시입니다.

먼저, 금회 포럼개최에 즈음하여 많은 힘을 써주신 한국 충청남도 의회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개최를 위해 애를 써 주신 각 지구, 각 지방 정부의 모든 분에게도 제각각 열렬한 환영을 하여 주신 것에 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아키타 현을 소개한 영상을 보여 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아키타 현은 일본의 북동부, 동경에서 보면 북으로 약 450킬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키타의 매력은, 사계절 철철이 볼 수 있는 풍부한 자연의 풍경입니다. 봄에는 벚꽃, 여름은 초록, 가을은 홍엽, 그리고 겨울은 눈과 수빙, 정월 설 맞이 행사, 온천과 토속요리도 마음껏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키타에 꼭 놀러 오세요.

이번 테마는 「동북아시아 지구에 있어서의 문화와 관광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입니다. 지금 일본 국내는 대 도시를 중심으로 방일 외국인 여행자가 수가 역대 최고의 기세로 증가하고 있고 나라에서는 2020년의 동경 올림픽·파라림픽 개최시의 방일 외국인여행자수, 연간 3,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타를 시작으로 하는 지방은 모두 손님유치에 고전하고 있는 것이 실태이고 그것이 공통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본을 방문 하는 리피트의 비율도 증가하고 아키타 등의 지방도시에 발을 뻗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써서 아키타에 오게 할 수 있을지 아키타의 매력 발산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지금의 매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관광자원의 개발과 테마 성, 스토리 성이 있는 아키타만의 독특한 여행을 국내외에 폭넓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5년의 대책은 아키타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 됩니다.

먼저, 아키타 현의 관광객 유치에 관한 대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에 관해서 입니다만, 2001년에 아키타 공항과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국제 정기편이 취항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편은 지금까지 40만명을 넘는 일한양국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관광이나 비즈니스는 물론, 문화와 스포츠 등 폭 넓은 분야에서의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이와테 현과 연계해서 서울 사무소를 개설 한 것 이외, 2008년에는 현지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설치하는 등으로 한국에서의 관광객 유치를 향한 체제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 가을 드라마 「아이리스」가 한국에서 대 히트를 하여 그 로케현장이 되었던 아키타현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로케현장 순례로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아키타 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의 일본인 여행자 수는 엔의 환율이 낮아짐 등에 의해 감소경향으로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아키타현도 국제 정기 편은 작년 12월부터 금년의 10월까지 운휴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차터(charter, 전세기)편의 운항과 타 공항을 활용한 인 바운드 손님유치 등 관계기관과 연대하면서 더 많은 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중국에 관해서는 현재 중국어 판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향후 중국 국내에 현지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배치하여 현지의 항공회사와 여행 에이전트(agent)에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차터(charter)편 유치 등의 본격적인 추진, 중국과 한층 더 밀접한 관광교류를 시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관민의 조직인 동북 관광 추진 기구에서는 작년도 동북의 사계절과 역사문화,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광역 관광 주유 루트로서 「일본의 오키노 잉(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사원 및 건물)·동북 탐방 루트」가 나라의 인정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향후 손님유치를 겨냥한 대책을 본격화 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구의 사업과도 긴밀하게 연대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유객확대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 외에 러시아 연해 지방과는 작년 우호 협정 체결 5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사와 저를 비롯하여 현 내의 젊은 경영자와 함께 우라지오(구. 블라디보스톡)와 하바롭스크 그리고 이루크추크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지의 기업가들과도 의견 교환을 했고 향후도 관광 문화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깊은 교류를 가질 것을 서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교류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키타현 에서는 2011년에 문화의 힘으로 아키타를 활기차게 하게 하기 위해 「아키타문화 르네상스 선언」을 선포하여 지역의 문화력을 높이고, 그 문화력으로 지역을 활기차게 해 나가는 대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아키타 문화 진흥 비전」을 책정하여 해외와의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국제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아키타 현의 문화를 홍보하는 것 이외에 국제교류를 통한 차세대 후계자 육성과 문화 교류의 확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키타현은 이시이바쿠, 히지카타타츠미라고 하는 세계적인 평가가 높은 무용·무용가를 배출했고 올 10월에는 아키타 현에서「국제무용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 페스티벌에는 한국 모던댄스 컴퍼니나 한국의 전통무용단을 초대해서 현 내의 무용단과 함께 연기를 피로할 예정이고 무용·무도를 통한 아키타 만의 독특한 문화를 국내외에 발산해 나가고 싶은 의도입니다.

또한 2017년 4월에는 불꽃놀이 대회로 유명한 본 현의 다이센시에서 국제 불꽃놀이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세계 불꽃놀이 관계자를 불러, 강연, 연수, 세계 불꽃 쏘아 올리기 등을 통해 불꽃놀이 문화의 교류의 장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 향후도 지속적으로 국제 문화 교류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년, 아키타 현 내에서 모글 월드컵 등의 국제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관광과 문화를 연계시키는 대책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회에 맞추어서 「관광 투어」에 선수·코치, 미디어 관계자를 초대하여 온천, 아키타 견(아키타 개) 식문화 등의 향토자원을 마음껏 즐기게 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하는 전통 문화 체험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역사에 접하는 체험 형 관광 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관과 민, 지역이 연대할 대책이 요구되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로서도 이러한 일들의 관광 진흥과 국제 문화 교류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이 되지만, 오늘 여기에 모이신 내빈 여러분의 활약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